

## News

### 은행채 발행 재개…대출금리 하락하나

서울경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사실상 중단됐던 은행채 발행이 약 2개월 만에 재개… 유동성 경색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조치를 일부 완화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수신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여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 사라진다 … 도산위기 中企 3년만에 최대

매일경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부실 징후 기업 숫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2022년 전년 대비 25개 늘어난 185개사를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혀…이는 2019년 이후 최고치로 2018년 190개에 근접한 숫자

### 은행, 고정금리 대출 확대 총력…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 고심

조선일보

당국은 시중은행에 올해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0.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

최근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은행채 발행 축소 등의 요인으로 고정금리에 반영되는 기초 금리들이 하락하며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

### 카뱅, 고신용자 대출 21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

세계일보

카카오뱅크는 21일부터 31일까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를 제외한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고 밝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차보험료에도 영향 '정비공임' 협상 난항…9.9% vs 동결

머니투데이

지난 16일 기준 자동차 시간당 공임비 인상 위해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협의회 진행했으나 올해내 재논의한다는 입장만 확인

자동차정비업계는 정비공임비를 기존대비 9.9% 인상해야 한다는 카드 들고와… 반면 손보사들은 동결 주장… 연말 한차례 추가 보험료 인하 상황에서 공임비 인상은 부담

### "먹고살기 팍팍해서…" 보험 24조 중도해약

국민일보

지난 9월까지 국내 영업 중인 생보사 23곳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총 24조 3,300억원으로 집계…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 가입자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

효력상실환급금도 빠르게 증가 중… 9월말 기준 누적 9,4000억원으로 3개월 전대비 48.1% 증가… 약관대출은 고정형 기준 연 8.6%에 이르는 등 금리가 높아…

### 증권사 ISA시장,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맞아 활기

굿모닝경제

증권사들,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ISA 상품 마케팅 강화 중… 올해 경기둔화 및 증시 침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대 가능한 ISA시장으로 유동성 몰려…

증권사 고객 총 354만 554명 유치로 전년동기대비 79.94% 급등… 지난달까지 누적 수익률 상위 10개사 중 8개사를 증권사가 가져가는 모습

### 약세장에도 올해 주식 계좌 800만개 늘었다

조선비즈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 지난 16일 기준 6,366만 958개로 집계… 작년말 5,551만 4,906개보다 15% 증가

올 초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분석… 1월 한 달 간 늘어난 활동계좌 수 총 366만개에 이르러… 1월 급증 이외에는 코로나19 평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헌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